

진여원(眞如苑) NEWS LETTER

[제19호](2015.6)

서울시 용산
구 청파동
3가 119-2
진여원홍보
팀

불교TV(BTN) 부처님오신날 신묘엔 특집 방영

종정스님, 불교TV 통해 한국불자들에게 메시지

지난 5월 26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불교TV(BTN)는 특집 방송으로 “행복의 길 신묘엔”을 방영하였다. 방송에서는 신묘엔 부산 정사와 수행하는 교도들의 모습을 소개하였고, 개조께서 성원(聖願)으로 가르침을 여신 고난의 극복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하였으며, 종정스님과의 인터뷰도 자세하게 방영하였다. 아울러 종합도량 응현원으로 이동하여 법회가 개최되는 모습, 신묘엔에 맺어진 세계 각국 교도들과 인터뷰를 통해 현재 느끼고 있는 행복한 삶의 내용 등을 생생하게 방영하였다. 또한 부동명왕, 열반존상 등 개조께서 권청하고, 근각하신 불상과 그 의미를 조명하고, 하와이 등룡떡우기 행사, 타 종교 대표와의 교류행사 등도 함께 방영하였다.

신묘 종정스님께서서는 방송에서 “신묘엔 개조 이토신조(伊藤真乗)는 승려가 아니면 구제받을 수 없는 세계에서 재가자들도 구제되는 길을 열고 싶은 바람으로 열반경을 만났고, 상당한 선견을 지니신 분이였다”고 개조의 큰 원력을 전달하시면서 “과거의 모든 영가도 구제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도 구제

되는 참된 길을 펼치는 곳이 신묘엔이라는 종단이다”며 신묘엔의 근본 정신을 말씀하셨다. 이어 종정스님은 “신묘엔에서 행해지는 점심수행은 사람의 마음을 비취내는 것으로서 마음을 비추어 이렇게 하면 행복해져요, 길이 열려요, 미래가 있어요라는 가르침”이라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시면서 “과거의 고통에 얽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추어가고, 마음을 바꾸도록 해서 각자가 갖고 있는 좋은 점, 즉 개성을 빛나게 만들어가도록 열어주는 것이 신묘 가르침”이라고 강조하셨다.



<응현원에 전시된 노르웨이의 샤크나게>

상담접심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만, 저와 똑 같은 병으로 고통 받으며 외로이 돌아가신 방계 조상님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목숨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고마운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뜻밖에 서울포교소에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번역 일을 맡게 되어 하늘로 날아오를 듯이 기뻐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할머니께, 다음으로 남편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도, 생모도 아닌,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기 때문이었고 또 신요엔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남편은 흔쾌히 찬성해 주었습니다.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스지오야님께서서는 그러한 저에게 더 깊은 곳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평소 번역 일을 능숙하게 잘한다고 듣고 있었지만, 그 ‘빛나는 개성’을 신요 가르침 속에서 발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본어와 한국어에 능숙한 것은 어머니가 일본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지금이야말로 어머니를 아내로 선택해주신 아버님께도 감사드려야 하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몸 속에 일본 문화와 사고방식을 남겨주신 어머니께도 감사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생모를 계속 비난하고 추궁하는 자신의 추한 모습을 응시할 수 있었고, 저를 나아주신 부모님께 여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사의 마음이 샘솟았습니다.

뭔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키워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 주신 것, 그 자체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초신자 점심 2번째에 받은, 부모가 길러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영언이 생각났습니다.

디반열반경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을 만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인데 이는 마치 망망대해에 눈먼 거북이가 바다에 떠있는 나무의 구멍을 만나는 것과 같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 그리고 가르침에 맺어준 인도자님께 감사한다는 것. 더구나 지금은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예자에 참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주신 부모님께 제일로 감사해야지 누구한테 감사를 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마음으로 올해 4월 부산 정사에서 처음 행해진 대환희 첫 예자에서 게이슈사마께서 감사하게도 상승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신요 가르침이 없었더라면 아마 저는 지금쯤 큰 병을 앓아 누워있었을 지도 모릅니다.

평생토록 목숨이 다하는 그 날까지 게이슈사마의 손과 발이 되어, 한국 신요엔의 토대가 되도록 정법호지의 마음으로 정진할 것을 맹세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진리를 정진하기 위해서 임을 알아야 한다.

나무 신요!

그런 가운데 2005년 대승을 상승받고 나서 더 깊이 깨달은 것은 어렸을 때 저를 두고 간 생모를 미워하는 것처럼 키워준 할머니 또한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할머니께서 결혼을 반대하셔서 부모님께서 헤어지셨다고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할머니와 생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머니가 생존하는지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어느 날 시청에 가서 어머니의 호적을 조사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 후 재혼하여 3명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적을 찬찬히 보니, 장녀에게는 제 이름 한 글자를 넣어 이름을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신노 가르침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지금도 아버지와 사이가 틀어진 채로 아버지와 생모, 할머니의 마음에 다가가지 못한 채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할머니께서도 어머니가 살아계신 것, 재혼한 것을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습니다.

그간 세 가지 실천에 정진하는 가운데 신노 영계의 가호를 받으며 일본의 대학에서 일본어와 한국어를 가르치는 경력을 쌓을 수 있었고, 결혼, 출산, 어느덧 저도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직장 관계로 한국에 귀국하게 된 것은 작년 2월입니다. 귀국하기 전 점심에서 경제적으로 힘들 것이니 일자리를 찾아 보라는 영언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대학에서 일했던 탓에 한국에서도 쉽게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다소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디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결국 건강을 해쳐 자궁내막증식증으로 작년 12월에는 간단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발고대수로 병은 조기에 발견되었고 난생 처음 수술이라는 리브라이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신노 영계의 가호로 여태껏 아무 탈없이 건강하게 살아온 것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재취업, 경제적 불안, 육아와 건강 문제. 정말 힘든 1년 이었습니다만, 보배와 같은 1년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귀한 것은 죽음을 직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지도 못한 답이 나왔습니다. 저는 내가 죽으면 딸 걱정을 많이 할 거라 생각했습니다만, 뜻밖에도 소속의 미래가 가장 걱정이 되었습니다. 딸은 남편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하지만 소속은 누가 키워줄까? 내가 없어도 다들 속내를 털어놓고 상구보리 할 수 있을까? 아침저녁 독경 후에 기도의 시간에서 “좀 더 똑바로 우리들을 일여 교도를 키우고 나서 가지.. 그냥 가면 어떡해... 너무했어”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저는 죽을 순 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속을 제대로 키우면 우리 딸을 어떻게든 신노 교도로 키워주겠지... 죽을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만큼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싶다고 절실히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소중히 키워주신 할머니를 위해서도 꼭 행복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노 가르침에 맺어진 것은 10년간의 한국 생활을 마치고 일본에 귀국한 직후, 2000년 2월 8일 신노 개조·영조님께서 가르침 한 길에 서신 날이었습니다. 직장 에서 만난 분으로부터 인연 끊기의 길을 인도받았습니다. 가르침에 맺어지고 난 후 신기하게도 영혼이 구제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귀원할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봉사자분들이나 법우님들의 따뜻한 말썸과 모습을 통해 영혼이 치유받아, 얼음같은 마음이 서서히 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접심을 받았을 때의 일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옆에 분이 받은 ‘화합의 소중함’에 관한 영언을 들으면서 남의 일 같지가 않아 그만 소리를 내어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받은 첫마디 “여기까지 오면 이젠 안심하셔도 됩니다”는 영언에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다는 마음과, 이제야 겨우 만나게 된 안도감에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마치 제 영혼을 따뜻한 담요로 꼭 감싸 안는 것 같은, 어머니 품에 안긴 것 같은 포근함을 느꼈습니다. 이 가르침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상님께서 등을 밀어주시는 것 같았고 두 법사님의 발고대수를 받아, 초신자 접심을 계기로 세 가지 실천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회에서 ‘원친평등’의 이치를 배웠을 때에는 부모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졌습니다. 영조님의 친교 “남을 비판하는 마음”을 배독했을 때에는 일이 잘 안 풀릴 때 특히 부모님이나 남을 비난하는 자신과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것의 중요함”을 배우고는 진심으로 자신의 성격을 바꾸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저녁 독경, 영가천도, 호마에 정진하는 가운데 서서히 정화가 되어, 저는 고교 3학년 이후 15년간 연락 두절된 아버지께 용기를 내어 연락을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가르침에 정진하고 세 가지 실천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가족의 화합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집 근처 카페에서 저와 할머니,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15년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라고 머리 숙여 사과하는 저에게 “이젠 됐다. 아버진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해줬지. 죽을 때까지 널 못 볼 줄 알았다”며 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와 할머니, 새어머니도 15년만에 화해를 했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가끔 전화를 주셨고, 아버지의 고민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개조와 영조님께서 제 마음의 그릇을 넓혀 주셨습니다.

참좌한 60여명의 교도들은 종정스님께서 ‘등룡을 띄어주세요’라는 말에 맞추어 질서 정연하게 등룡을 띄웠다. 이번 이벤트는 부산 청년의 이벤트팀이 기획한 것으로서 많은 감동을 자아냈다

불교TV, “신노엔 하와이 등룡띄우기” 뉴스로 보도

불교TV(BTN)는 지난 6월 2일 세계불교 토픽 뉴스에서 신노엔의 하와이 등룡띄우기를 보도하였다. ‘하와이해변 장엄한 유등’, ‘태평양 밝힌 등불’ 등으로 보도된 뉴스에서 5월 네 번째 월요일 미국 현충일에 신노엔이 1999년부터 하와이 알라모아나 해변에서 개최해 온 극락왕상을 발원하는 등룡띄우기 행사에 매년 5만여명이 참가하여 세계 2차 대전 희생자 뿐 아니라 바다에서 희생되거나 재난으로부터 목숨을 잃은 이들의 넋을 기리고 세계인의 평화를 기원하는 이 행사에 수천개의 등룡이 띄워졌다고 보도되었다. 기사내용과 영상은 다음의 주소에 확인할 수 있다.

① 기사 : <http://m.btn.co.kr/mContents.html?pageMode=CONTENT&board=news&boardgroup=&uid=15816 ¶ms=page=1>

② 영상 : <http://btnvod.nowcdn.co.kr/btnvod/news/201506/03/mp4:2015060303.mp4/playlist.m3u8>

③ 영상 : <http://www.btnnews.tv/news/view.asp?idx=32528&msection=2&ssection=24&page=1>

【체험담】 이혼 가정에서 부모 사랑도 모르고 자라났으나..... 가르침을 만나 화합의 마음과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이미강 교도



저는 재일한국인으로서는 아버지는 한국인, 어머니는 일본인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셨는데, 성인이 될 때까지 친할머니께서 한국음식점을 하시면서 키워 주셨습니다. 저는 사춘기 때부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친할머니가 어머니이자 아버지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과묵한 아버지하고는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기억이 없고, 남이나 마찬가지로 지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겨울, 희망하던 한국의 대학에 진학하게 되어 아버지께 보고를 드렸더니 여자는 대학갈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서 반대하셨습니다. 저는 부모역할을 제대로 못 하시면서 대학진학을 반대하는 건 이상하지 않느냐고 덤벼들어 제 스스로 부모와의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아버지와 싸운 후 저는 언젠가는 보란 듯이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생활은 좌절 그 자체였습니다. 자격을 갖추어도 취업이 되지 않았고, 일본어 교과서를 공동으로 만들어도 제 이름만 빼고 출판이 되었고, 사귀던 남자친구와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계각국의 “불교에서는 매우 어렵게 여러 가지를 깨달아 가거나, 힘이 있다는 등 많은 수행방법이 있지만, 신노엔에서는 알기 쉬운 세 가지 정진(사람인도, 환희(보시), 봉사)으로 집약되어 있다”며 신노엔의 수행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하셨다.

아울러 신노엔의 특성에 대해 종정스님은 “다른 종교나 습관, 문화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융화해 가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손을 맞잡고 가는 것이 각자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며 섭수 및 제섭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또한 종정스님은 지난 번에 발생한 네팔 대지진에 대해 “네팔은 제가 12년 전에 방문한 곳입니다. 정말 돌아가신 분들 안타깝습니다. 그 가족분들 또한 안됐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분들, 저 세상도 이 세상도 미래의 세상도 한 마음으로 구제되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며 신노엔 교도 모두가 안타까운 마음과 아울러 구제를 바라는 자비심을 갖추어 나갈 것을 강조하셨다.

불교TV, “행복의 길 신노엔” 특집방송 방영

불교TV(BTN)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5월 23일 13:30, 5월 26일 20:30, 5월 27일 13:30의 세 차례에 걸쳐 “행복의 길 신노엔”을 방영하였다. 방영시간은 23분으로서 PC 및 스마트폰으로도 시청이 가능하다. 각 주소는 다음과 같다.

①PC는 http://www.btn.co.kr/pro/Program_detail.asp?ls_StSbCode=CATPR_04&PID=P413&DPID=71120

②스마트폰은

<http://btnvod.nowcdn.co.kr/btnvod/special/btnsp2/mp4:special710.mp4/playlist.m3u8>



<부산정사에서 청년들이 기획한 등롱띄우기 준비>

부산정사에서도 등롱띄워

지난 5월 25일 하와이에서 봉수된 등롱띄우기법요를 비디오로 방영한 5월 30일 18:00시 부산정사에서는 보전에 작은 단상을 마련하여 한국최초로 등롱을 띄웠다.

3층 보전 앞에 길이 15m, 폭 60cm, 높이 20cm 정도의 바다색 천으로 덮은 단상에 종이로 등롱을 만들고, 등롱안에 전구를 넣어 불빛을 발하도록 했다.